

“협업으로 성과...산업 발전 힘 보태겠다”

●광양제철소 제강설비부이선동 명장

현장 직원 첫 ‘금탑산업훈장’ 수상...34년간 연주 설비 관리 공정 개선·37건 특허로 생산성·품질 높여...협력사 지원도

“말은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강설비부에 근무하는 이선동(58·사진) 명장이 현장 직원 중 최초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해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장부포상 시상식에서 이 명장이 제철소 연주(연속주조·제강을 거친 액체 상태의 용강을 냉각, 응고시켜 반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것) 공정·설비 관리 혁신과 협력사와의 상생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이 명장은 지난 1989년 입사 후 약 34년간 연주 설비 유지 관리와 성능 개선을 이끌어 온 현장 전문가로, 연주 분야에서 총 2천194건의 공정 개선 방안을 제안해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37건의 특허를 받아 147억원 이상의 재무 효과를 창출했다. 특히 그가 개발한 연주기 설비 관리 시스템과 연주기 롤러 자동 정렬 시스템은 설비 관리를 고도화하고 작업 능률을 대폭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명장은 협력사와의 상생에도 솔선수범해 왔다. 그는 2013년부터 고충상담 간담회를 통해



협력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용 휴게 공간을 신설하는 등 업무 환경 개선에 힘썼다.

협력사 대상 직무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전용 기술 실습장을 신설해 협력사 기술 경쟁력 제고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선동 명장은 “좋은 회사, 좋은 동료들 만나 협업으로 성과를 창출했기에 받을 수 있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노력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포스코는 이 명장을 포스코 기술인 최고 영예인 ‘포스코 명장’으로 임명했다. 포스코 명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인품을 겸비한 직원을 예우하고 포상하는 제도로, 포스코는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25명의 명장을 선발했다. 이 명장을 비롯한 포스코 명장들은 ▲기술 전문 ▲신입사원 및 사내 대학 특강 ▲협력사 및 고객사 설비 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광양=양홍렬 기자



광주매일신문 ‘AI 챗GPT 기사쓰기’ 사내연수

광주매일신문은 2일 오후 본사 교육실에서 편집국 등을 대상으로 ‘2024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을 진행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마련된 이날 특강은 김형주 아태라커뮤니케이션 대표를 강사로 초청, ‘AI 챗GPT 기사쓰기 및 저작권’을 주제로 진행했다. 김대표는 “챗GPT는 문서 생성, 질문에 대한 답변, 번역 및 요약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거나 맥락을 확인하는 데 강점을 지닌다”며 “명령어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챗GPT가 내놓는 결과물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식 부족, 편향된 학습 데이터, 출처별 정확성 결여, 개인정보 보안 문제 등 챗GPT가 갖는 한계 또한 분명한 만큼 사용법에 대한 스킬을 고민해야 한다”며 “마치 취재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접근하면 좋으며 요약, 제목 작성, 뉴스 맥락 확인 등에서 활용 가치가 높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김대표는 “결국 챗GPT는 사용자 능력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질문’이다”며 “저작권, 오류에 대한 검증 등 철저한 확인을 거친다면 기사 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명진 기자



전남도-시·군, 고향사랑 활성화 워크숍

전남도는 “최근 이틀간 제주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와 전남 사랑(愛) 서포터즈 도·시·군 담당자 대상 ‘2024년 고향사랑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해 추진 현황 공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고 2일 밝혔다. 워크숍에선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발굴 및 시행 준비를 위해 홍보성 행정안전부 서기관을 초청해 지침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성과와 향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구원 서기관은 지정기부 사업 시행과 관련된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당부하면서 기금사업 선정 전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사업 선정 후 사업 내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를 활용한

홍보 등 방향성을 강조했다. 신실장은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 운용 실적과 관련 현황 분석을 토대로 전남도 고향사랑기부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담례품 개발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이날 한 달간 가정의 달 맞이 고향사랑 집중 홍보를 하고 6월 말까지 진행되는 도·시·군 모집캠페인과 서포터즈 1촌 맺기 이벤트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전남 사랑(愛) 서포터즈와 고향사랑 기부금은 자전거의 양 바퀴와 같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며 “특히 일선 시·군은 할인가맹점 추가 확보를 통해 매력적이고 즐거운 관광전남을 만들기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양시원 기자

노회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취임

노회용 제5대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가 2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임기는 2년이다. 노회용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재단은 ‘문화예술로 행복한 문화도시, 광주 건설’을 목표로 문화도시 만들기의 중심 역할을 해나간다는”고 말했다. 특히 노 대표이사는 재임기간 동안 기금 목표액 500억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재단 기금액은 111억원이다. 구체적 목표·실천과제로 ▲네트워크 연대활동 강화 ▲문화도시 주역인 문화시민 양성 ▲예술인의 행복한 창작 지원 환경 조성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문화예술의 수요창출과 공급 확대 유도 ▲전문성을 갖춘 문화기관으로 위상 확립



등을 제시했다. 또한 조직운영 방침으로는 ▲일 중심 조직 운영 ▲밝고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 ▲세일즈 마케팅으로 국·시·미 예산 및 재정 확보 ▲인직원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오픈마인드 자세 등을 강조했다. /최명진 기자

동신대 글로벌 연합대학,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참가

동신대학교가 글로벌 연합대학 성과 모델로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가해 주목을 끌었다. 2일 동신대학교에 따르면 4월30일-5월3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초당대, 목포과학대와 함께 참여해 ‘나주 대실마을 에너지프로슈머 리빙랩’ 공동프로젝트 결과물을 선보였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e-모빌리티 충전스테이션(아이오티플러스), 농업용 e-모빌리티, 공유형 표준배터리팩(이노모티브), 드론을 활용한 감시시스템(루이아엔티)의 경우 엑스포를 찾은 농업인,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제주 감귤협회가 저숙온반기기 주문 요청을 했으며 영월 중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농업기



술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시범 농가를 조성하기로 하는 등 리빙랩 모델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주희 총장은 “앞으로 더 많은 혁신을 통해 기업과 대학, 지자체의 동반성장이라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고 타 지역으로 공유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이 기자

광주소방-한울복지재단 ‘불용 소방차 무상양여’ 협약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이하 광주소방)는 2일 “소방안전본부 회의실에서 (사)한울복지재단과 불용 소방차 개발도상국 무상양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발도상국에 불용 소방차를 무상으로 지원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소방의 위상을 높이고 개발도상국의 소방안전 환경 개선과 국제적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 체결을 통해 올해 광주소방은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차 12대를 한울복지재단을 통해 개발도상국(파라과이)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앞서 광주소방은 2018-2023년 매년 파라과이에 소방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불용 소방차량 총 37대를 지원했다. 송운순 한울복지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튼튼한 대한민국의 소방차



량과 소방대원의 전문적인 교육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김문용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차량 무상 지원과 더불어 오는 7월 파라과이 소방대원 초청 연수교육 등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 소방조직이 함께 발전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문금주,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문금주 제22대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당선자가 김철우 보성군수의 지목을 받아 지난 1일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는 줄이고 착한 소비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한 범국민 실천 운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환경부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금주 당선자는 “기후 위기로 인해 농어민의 삶이 더욱 불안정해졌다”며 “플라스틱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후 위기 극복을 통해 모두가 잘 사는 지구를 위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문 당선자는 또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목포 산정방범대 ‘3월 베스트 방범대’ 선정

목포경찰서는 2일 “지난달 30일 산정자율방범대가 3월 최고의 자율방범대로 선정돼 전남 경찰청으로부터 인증패와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석에는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범상 목포경찰서장, 조팔서 전남자율방범연합회장, 강종현 목포자율방범연합회장, 산정자율방범대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산정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지역 범죄 예방진단, 지자체 시설·개선 건의 등 치안 환경 개선 참여, 협력 단체 연합 야간 합동 순찰, 청소년 선도 ‘사랑의 초코파이 캠페인’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범 활동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범상 목포경찰서장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베스트 자율방범대 선정을 계기로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 치안을 위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담양 중앙파출소, 교통환경 개선 자문단 회의

담양 중앙파출소는 “최근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체 치안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임성택 파출소장을 비롯해 주민경담양읍사무소 부읍장, 조희범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시설물 설치에 대해 논의했다. 임성택 중앙파출소장은 “교통사고 다발 지역 인담양읍 천변리 중앙장 앞 사거리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으로 교통 시설물의 적절한 설치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역은 소방도로 개설로 차량 소통 증가와 도로 주변 주차 차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 시야를 가리는 정원수 정지 작엽과 교통 시설물 설치·보강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나주경찰, 박미정 자율방범대에 감사장

나주경찰서는 2일 “전날 박미정 산포 자율방범대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대원은 평소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 등 지역에서 왕성한 봉사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박 대원은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최근 열린 산포면민의 날 행사에 아침 일찍부터 나와 행사가 끝날 때까지 봉사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귀감이 됐다. 박미정 대원은 “내가 몸이 아프다 보니 시간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낀다”며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봉사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진영 나주경찰서장은 “경찰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자율방범대와 같은 협력 치안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나주시민과 나주 경찰이 함께함으로써 ‘안전한 나주’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행사

▲제45회 담양군민의 날 기념식은 3일(금) 오후 1-4시 담양문화회관, 담양군 담양읍 지평길 29, 담양군 행정과 행정팀 (061-380-3175).